

2014년도2학기 계량경제학연구-류근관

설 문 내 용	결과	전체
1.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데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?		
(1) 필수과목이기에	11(15%)	93(100%)
(2)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	15(21%)	
(3)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41(57%)	
(4)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7(10%)	
(5)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	0(0%)	
(6) 명강의로 소문나서	18(25%)	
(7) 재수강	1(1%)	
2.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?		
(1) 1/4 미만	0(0%)	72(100%)
(2) 1/4 이상 2/4 미만	0(0%)	
(3) 2/4 이상 3/4 미만	1(1%)	
(4) 3/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	8(11%)	
(5) 거의 100%(거의 매번 출석)	63(88%)	
3.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? ((1)-(3)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 경우)		
(1)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	0(0%)	71(100%)
(2) 시험 때만 하였다.	3(4%)	
(3)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.	7(10%)	
(4)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연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.	34(48%)	
(5)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연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.	27(38%)	
4.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72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4(6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9(26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30(42%)	
(5) 매우 그러했다.	19(26%)	
5. 사용된 교재,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2(3%)	72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6(8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3(18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31(4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20(28%)	
6.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2(3%)	72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9(13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8(25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24(3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19(26%)	
7.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	
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72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1(1%)	
(3) 그저 그러했다.	9(13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33(46%)	
(5) 매우 그러했다.	29(40%)	
8.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(질문, 면담, 게시판, e-mail)를 제공받았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72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6(8%)	
(3) 그저 그러했다.	20(28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4(19%)	
(5) 매우 그러했다.	32(44%)	
9.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?		
(1) 너무 적었다	0(0%)	72(100%)
(2) 적은 편이었다.	6(8%)	
(3) 적절했다.	45(63%)	
(4) 많지만 할말했다.	13(18%)	
(5) 너무 많았다.	8(11%)	
10.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(1) 너무 쉬웠다.	0(0%)	72(100%)
(2) 쉬운 편이었다.	1(1%)	
(3) 적절했다.	23(32%)	
(4) 어렵지만 할만했다.	38(53%)	
(5) 너무 어려웠다.	10(14%)	
11. 교수님의 강의 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(1) 매우 느슨했다.	0(0%)	72(100%)
(2) 느슨한 편이었다.	1(1%)	
(3) 적절했다.	42(58%)	
(4) 딱딱하지만 할만했다.	25(35%)	
(5) 너무 딱딱했다.	4(6%)	
12.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72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11(15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31(4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30(42%)	
13. 실습 또는 연습시간(TA session)은 유용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4(13%)	30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2(7%)	
(3) 잘 모르겠다.	14(47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6(20%)	
(5) 매우 그러했다.	4(13%)	
14. 담당교수는 유능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1(3%)	30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14(47%)	

(4) 대체로 그러했다.	7(2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8(27%)	
전체		

기타 건의사항

- 계량경제학연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. 학생들의 발표로 구성되는 수업보다 교수님 강의를 이번학기 내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다만 학점 자체를 위해서, 주어진 과제들의 피드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. Suggested solutions이라든가 따로 질문할 수 있는 TA시간의(조교 연구실 시간에 가보면 부재) 활용이 많이 아쉬웠습니다.
- 미리 진도 나갈 범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.
-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 수업을 하시는데 그걸 문서나 강의노트로 만들어 주시면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판서를 적다 보면 교수님의 설명을 놓치게 되어 아쉽습니다.
- Bayesian Approach 설명해 주실 때 강의노트가 필요합니다.
- 흑판 강의실에서 수업해 주세요.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.
- 강의슬라이드를 함께 제공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- 유익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- 강의슬라이드가 유용할 것 같아요.
- 교재를 따라가지 않으니 PPT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.
- 계량경제학연구 research course를 상,하/I,II로 나눠서 2학기 동안 심도 있게 콜로 기움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어요. 경통도 상,하/I,II, II는 특히 research과정 심화로 하였으면 합니다.
- 숙제 피드백 필수 / 과제와 수업의 연관성 증대 / 강의는 굉장한 명강이나 강의/과제 괴리가 크고, 과제의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TA session 등이 요구됨.
- 칠판 잘 안 보입니다.
- 숙제를 늘린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
- 83동 대형 강의실처럼 멀어도 잘 보이는 강의실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. 수업시간이 11시인데 10시 35분에 나오지 않으면 칠판 보이는 자리 잡기가 너무 힘드네요.